

난립한 불법 정치 현수막, 광산구서 첫 과태료 부과한다

설 연휴 기간 규정 어긴 50개 정비...대부분이 '표시 기한 위반' 정치권 눈치보며 제재 미온적인 광주 타 자치구와 대조적 행보

광주시 광산구가 광주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불법 정치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정치권 눈치를 보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다른 지자체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도심 미관을 해쳐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에도 악영향을 줬던 불법 정치 현수막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지난달 25-31일 7일 동안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정당현수막 50개를 정비했다.

단속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40개로 가장 많았으며, 자유민주당 2개, 기독당 2개, 국민통합당 2개, 새미래민주당 2개, 기본소득당 1개, 정의당 1개 등이다.

광산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불법 현수막 중 위반 정도가 중한 16개에 대해 512만원의 과태료를 당에 부과할 방침이다.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는 설치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1건당 32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광산구는 1월 1-24일 사이에도 26개의 불법 정당현수막을 철거했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 832만원을 이날 중 부과할 계획이다. 현수막 설치자가 확인되면 1월에만 정치 현수막에 대한 총 과태료 부과 금액은 1664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엔 적발 된 정당현수막의 대부분은 '표시 기한 위반'으로, 표시 기한을 넘겼거나 표시 기

간을 누락한 사례가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설치 주체를 표시하지 않은 현수막도 있었으며, 당대표나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회장이 아닌 사람이 정당 이름을 걸고 현수막을 내건 것은 정당현수막이 아니라는 판단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의 이같은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설치 요건을 어긴 정당현수막에 대한 정비 권한은 자치구에 있음에도 광주지역 5개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설 연휴 기간 광산구의 다른 4개 자치구에서는 총 7개 현수막을 정비한 게 전부이며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동구는 5개, 북구는 2개를 정비했으며 서구와 남구는 연휴 기간 중에 정당현수막에 손을 대지 않았다. 서구의 경우 연휴 직후에 표시방법을 위반한 11개를 철거했지만 역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다.

정당현수막은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까다로운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정당 현수막은 계절 이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장 권한으로도 설치 위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표시·설치 기간(15일 이내)이 지났거나

동별로 2개 넘게 설치한 경우, 교차로 가장자리라도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 인근에서 2.5m 이상 높이를 확보하지 않고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 현수막으로 취급된다.

공무원 사이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제재는 '뜨거운 감자'였다. 지자체장이 정당에 소속돼 있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 2023년에는 한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공무원을 고발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치구 담당자마다 법 해석을 다르게 해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소리를 내고 있기도 했다. 광주시의 한 자치구 불법현수막 정비 담당자는 "정당현수막은 지자체에서 허가·신고를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치구 담당자는 "정당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도 충분히 부과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매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조심스럽다"고 해명했다.

반면 광산구 담당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광주에 시장을 둔 정당 20여개에 '현수막 게시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행정처분 예고를 했던 만큼, 실제 집행까지 나서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각 정당이 정당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걸고, 정확한 기간 내에 철거하면 당연히 합법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불법현수막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당현수막이라고 회피하지 않고, 불법 사항에 대해 의지를 갖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 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시민이 국화꽃을 놓아주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이 학교에서 초등학생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대전서 교사가 초등생 살해...전국이 충격 광주·전남 교육계, 애도 속 예방대책 강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 광주·전남 교육계도 깊은 애도와 함께 긴급회의를 여는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전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학교 안전사고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 휴·복직 시 전문의료진의 진단을 반드시 거처도록 한다는 것이 안전점검의 주요 골자다.

교원 휴·복직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 부서와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교원 질병휴직과 복직 과정에 전문의료진의 진단과 회복 상태에 대해 진단서를 면밀하게 살피도록 했다. 또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질환교원심의회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복직 절차를 강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휴직 종류별 교원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질병휴직 중 정신 관련 질환 교원에 대해서는 복직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리정서 및 마음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지내야 할 곳이다"며 "학교 안전점검은 물론 학교 구성원의 마음건강·심리 지원을 꼼꼼히 챙겨 다니는 이러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대전 초등생 피살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애도 성명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말고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전교조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해당 학교의 교사로 알려졌다. 당시 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흉기에 찔린 학생과 교사를 발견했으나 학생은 병원에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영기 기자 penfoot@

'허벅지 돌찍기 살인' 배후자 2심도 무기징역

광주고법, 원심 유지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배후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1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29일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B(사망 당시 31)씨와 C(31)씨에게 서로 때리도록 지시해 B씨를 습격해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의 차 안에서 서로의 허벅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고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돼,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익원대 기차 빛을 만들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빛을 값싸고 B씨와 C씨에게 수시로 서로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두려움, 공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실제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육체·경제적으로 착취해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면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의 위법수집 증거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서로 폭행하게 만들어 한 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제대로 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돼 있고, A씨는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서 이번엔 레저보트 사고 60대 운항자 바다 빠져 숨져

여수 해상에서 운항중인 레저보트가 갑자기 기울어 조타실에 있던 60대 운항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11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11시 40분께 여수시 돌산 서쪽 1.3km 해상에서 0.9t급 모터보트 A호가 기울면서 조타실 내부에 있던 60대 운항자 B씨가 바다에 빠졌다.

B씨는 사고 40여분만에 사고지점에서 200m 떨어진 해상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구조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함께 동승했던 B씨의 아내는 A호에서 구조됐으며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아내가 사고 직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지인이 해경에 신고하면서 구조됐다.

B씨의 아내는 "항해 중 갑자기 광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조타실이 기울어져 B씨가 바다에 추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호에 압초에 의한 선박 충돌, 침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타실이 기울어진 이유와 B씨의 추락 경위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적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교반저장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교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케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시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